

국민 금융생활 안전 교육자료 · EDU-03

가계예산·현금흐름·비상자금

월별 숫자에만 매이지 않고 불규칙 지출과 충격까지 견디는 생활 안전망을 만든다.

낭독·음성 제작 원고

본문 10.5pt 이상 · 내용 기준 2026-08-24 · NEXUS FMI 국민 금융생활 안전교육

낭독·음성 제작 원고

괄호 속 안내는 읽지 않습니다. 문장을 천천히 읽고, '잠시 멈춤'에서 2초 쉽니다.

시작

EDU-03. 가계예산·현금흐름·비상자금. 월별 숫자에만 매이지 않고 불규칙 지출과 충격까지 견디는 생활 안전망을 만든다.

왜 배우나요?

예산은 절약표가 아니라 생활을 끊기지 않게 하는 시간표입니다

한 달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도 월세·보험료·세금이 한꺼번에 나가면 결제일에 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큰 지출을 빼놓으면 흑자처럼 보이던 가계도 갑자기 흔들립니다.

수입·지출·날짜·필수생활비·비상자금의 관계를 먼저 이해한 뒤에 예산표와 위기대응을 연습해야 합니다.

필수개념

현금흐름. 일정 기간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움직임입니다. 생활 예. 25일 월급과 20일 월세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확인 질문. 월말에 돈이 남으면 중간에 부족할 가능성은 없나요? 답. 있습니다. 지출일이 수입일보다 빠르면 중간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춤.

고정·변동·비정기 지출. 반복 방식에 따라 지출을 나눈 것입니다. 생활 예. 월세는 고정, 식비는 변동, 자동차보험은 비정기 지출로 봅니다. 확인 질문. 1년에 한 번 내는 보험료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인가요? 답. 아닙니다. 비정기이지만 예상 가능한 지출입니다. 잠시 멈춤.

필수생활비. 당장 생활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지켜야 할 비용입니다. 생활 예. 주거·식사·의료·출근 교통비를 우선 남깁니다. 확인 질문. 구독료는 자동이체이므로 항상 필수생활비인가요? 답. 아닙니다. 자동이체 여부와 생활 필수성은 다릅니다. 잠시 멈춤.

비상자금. 소득중단이나 갑작스러운 필수지출에 쓰는 접근 가능한 돈입니다. 생활 예. 실직 기간의 월세와 식비를 위해 별도 계좌에 둡니다. 확인 질문. 오늘 필요한 비상자금을 팔기 어려운 자산에 두어도 되나요? 답. 적합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멈춤.

생활비 바닥선. 위기에도 먼저 남겨 둘 최소 생활비 기준입니다. 생활 예. 월세·기본 식비·치료비·출근비를 합쳐 보호 금액을 정합니다. 확인 질문. 적자가 나면 모든 지출을 같은 비율로 줄여야 하나요? 답. 아닙니다. 필수생활비를 먼저 보호하고 선택지출부터 조정합니다. 잠시 멈춤.

개념이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

기초학습 1. 잔액과 현금흐름. 돈이 있는데 왜 월말에 부족할까요?

잔액은 한 시점에 남아 있는 돈이고, 현금흐름은 일정 기간 돈이 들어오고 나간 기록입니다. 월초 잔액만으로는 월말 부족을 알 수 없습니다. 잠시 멈춤.

수입일과 지출일을 달력에 놓으면 총액이 같아도 특정 날짜에 돈이 모자라는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춤.

생각 순서 1. 정기 수입의 금액과 날짜를 적습니다. 잠시 멈춤.

생각 순서 2. 필수지출과 자동이체 날짜를 적습니다. 잠시 멈춤.

생각 순서 3. 날짜별 예상 잔액이 0 아래로 내려가는 구간을 찾습니다. 잠시 멈춤.

생활 속 예. 월급은 25일인데 카드값은 20일에 빠진다면 월 총수입이 충분해도 20일에 결제 실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춤.

흔한 오해. 한 달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언제나 안전하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시점과 변동성도 중요합니다. 잠시 멈춤.

확인 질문. 월 수입 250만원, 지출 230만원이면 예산 점검이 필요 없을까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지출 시점과 비정기 지출 때문에 중간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춤.

기초학습 2. 고정·변동·비정기 지출. 지출을 왜 세 종류로 나눌까요?

고정지출은 매달 비슷하게 반복되고, 변동지출은 사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정기 지출은 매달 나오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수리비처럼 예상 가능한 큰돈입니다. 잠시 멈춤.

종류를 나누면 줄일 수 있는 지출과 미리 적립해야 하는 지출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춤.

생각 순서 1. 최근 3개월 내역을 모읍니다. 잠시 멈춤.

생각 순서 2. 각 지출을 고정·변동·비정기로 표시합니다. 잠시 멈춤.

생각 순서 3. 비정기 지출은 연간 예상액을 월 단위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잠시 멈춤.

생활 속 예. 연 60만원 보험료는 결제월에 갑자기 생긴 지출이 아니라 매달 5만원씩 준비할 수 있는 비정기 지출입니다. 잠시 멈춤.

흔한 오해. 고정지출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계약 갱신이나 해지 조건을 확인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춤.

확인 질문. 명절비는 매달 없으니 예산에서 빼도 될까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예상 가능한 비정기 지출로 월별 준비액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잠시 멈춤.

기초학습 3. 필수생활비와 선택지출. 무엇부터 지켜야 할까요?

필수생활비는 주거·식사·의료·교통처럼 생활 유지에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선택지출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기 비교적 쉬운 비용입니다. 잠시 멈춤.

적자 때 모든 지출을 똑같이 줄이면 건강·주거·근로 유지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잠시 멈춤.

생각 순서 1. 생활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항목을 표시합니다. 잠시 멈춤.

생각 순서 2. 연체 시 큰 불이익이 있는 지출을 구분합니다. 잠시 멈춤.

생각 순서 3. 조정 가능한 항목의 금액과 시기를 바꿉니다. 잠시 멈춤.

생활 속 예. 교통비는 단순 소비가 아니라 출근을 유지하는 필수비용일 수 있습니다. 반면 구독서비스는 해지 조건을 확인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춤.

흔한 오해. 즐거움을 위한 지출은 모두 낭비라는 판단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적과 한도를 정해 관리합니다. 잠시 멈춤.

확인 질문. 적자가 나면 월세와 통신 구독을 같은 비율로 줄여야 할까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생활 유지와 불이익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잠시 멈춤.

기초학습 4. 비상자금과 적자 대응. 비상자금은 얼마가 정답일까요?

비상자금에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정답이 없습니다. 필수생활비, 소득의 안정성, 부양가족, 의료·주거 위험에 따라 필요한 규모가 달라집니다. 잠시 멈춤.

비상자금은 수익을 높이기보다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고 원금 변동이 작은 곳에 두는 목적이 큼니다. 잠시 멈춤.

생각 순서 1. 한 달 필수생활비를 계산합니다. 잠시 멈춤.

생각 순서 2. 소득이 끊길 수 있는 기간과 큰 지출 위험을 추정합니다. 잠시 멈춤.

생각 순서 3. 목표액·월 적립액·사용 후 보충 규칙을 정합니다. 잠시 멈춤.

생활 속 예.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는 정규급여를 받는 사람보다 더 긴 기간의 필수생활비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춤.

흔한 오해. 비상자금을 투자상품에 넣어 수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생각은 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춤.

확인 질문. 비상자금 목표가 크면 준비를 포기해야 할까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작은 1차 목표부터 쌓고 상황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잠시 멈춤.

이 과제를 네 문장으로 먼저 이해하기

1. 가계예산은 돈을 아끼라는 명령이 아니라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의 시점을 맞추는 계획입니다. 잠시 멈춤.
2. 매달 같은 지출, 달마다 달라지는 지출, 가끔 큰돈이 드는 지출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잠시 멈춤.
3. 비상자금은 남는 돈이 아니라 소득 중단이나 갑작스러운 필수지출에 대비해 따로 둔 돈입니다. 잠시 멈춤.
4. 적자가 예상되면 추가 대출보다 먼저 지출 시기 조정과 공적 지원·상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잠시 멈춤.

생활 변화와 새 위험

구독·후불결제는 다음 달 현금흐름까지 차지합니다. 작은 월 결제도 여러 개가 겹치면 비상자금과 필수생활비를 줄입니다. 하지 않을 것. 이번 달 결제액만 보고 무료체험과 자동갱신을 빼놓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 자동이체·카드 정기결제·후불결제의 다음 청구일과 해지 조건을 한 표에 모읍니다. 지금 할 일. 필수생활비를 먼저 떼고, 사용하지 않는 연결·구독을 해지한 뒤 다음 달 잔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잠시 멈춤.

PART 1 · EDU-03

기초를 확인하고 나의 준비 상태를 살핍니다

점수보다 오늘 바꿀 행동 한 가지를 찾는다.

1. 나는 현금흐름의 뜻을 내 말로 설명할 수 있다. 잠시 멈춤.
2. 나는 '변동지출'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한다. 잠시 멈춤.
3. 계약·거래의 금액과 날짜를 한곳에 기록한다. 잠시 멈춤.
4. 광고와 공식 설명서를 구분해 본다. 잠시 멈춤.
5. 총비용과 최악의 결과를 비교한다. 잠시 멈춤.
6. 문제가 생기면 연락할 공식 기관을 알고 있다. 잠시 멈춤.
7. 가족이나 동료와 확인 규칙을 정해 두었다. 잠시 멈춤.
8. 한 달 안에 다시 점검할 날짜를 정한다. 잠시 멈춤.

PART 2 · EDU-03

왜 생활안전과 연결되는가

월별 숫자에만 매이지 않고 불규칙 지출과 충격까지 견디는 생활 안전망을 만든다.

1. 예산은 절약 경쟁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기 전 우선순위를 정하는 안전장치다. 잠시 멈춤.
2. 월급일이 같아도 납부일이 앞서면 현금이 모자랄 수 있다. 금액과 날짜를 함께 적는다. 잠시 멈춤.
3. 명절·보험료·세금·수리비는 비정기일 뿐 뜻밖의 지출은 아니다. 1년 예상액을 12로 나눠 준비한다. 잠시 멈춤.
4. 비상자금은 투자수익보다 접근성·원금 변동·인출 시간을 먼저 본다. 잠시 멈춤.

PART 3 · EDU-03

핵심 구조와 생활용어

이름을 외우기보다 돈·권리·책임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본다.

1. 현금흐름. 일정 기간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의 움직임. 잠시 멈춤.
2. 순현금흐름. 수입에서 지출과 상환을 뺀 금액. 잠시 멈춤.
3. 고정지출. 매달 금액이나 납부일이 대체로 정해진 지출. 잠시 멈춤.
4. 변동지출. 사용량과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지출. 잠시 멈춤.
5. 비정기지출. 매달은 아니지만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지출. 잠시 멈춤.
6. 필수생활비. 주거·식사·의료·교통 등 당장 지켜야 할 비용. 잠시 멈춤.
7. 비상자금. 소득중단이나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한 유동성. 잠시 멈춤.
8. 생활비 바닥선. 위기에도 먼저 남겨 둘 최소 생활비 기준. 잠시 멈춤.

PART 4 · EDU-03

비교·판단 도구

같은 기준표를 쓰면 급한 순간에도 판단 순서를 지킬 수 있다.

1. 지난 3개월 실제 거래를 수입·필수·선택·상환으로 나눈다. 잠시 멈춤.
2. 월평균이 아니라 가장 적게 번 달과 가장 많이 쓴 달도 본다. 잠시 멈춤.
3. 필수생활비를 계산하고 현재 비상자금이 몇 달을 버티는지 적는다. 잠시 멈춤.
4. 정상·주의·비상 단계별로 중단할 지출과 연락할 기관을 정한다. 잠시 멈춤.
5. 30일 뒤 계획과 실제의 차이를 한 줄로 설명한다. 잠시 멈춤.

PART 5 · EDU-03

다섯 장면 사례실습

정답을 고른 뒤 나중에 드러난 정보까지 확인한다.

1. 월급은 남는데 통장은 마이너스. 연간 지출을 빼고 매달 예산만 맞췄다. 안전한 다음 행동. 비정기지출 연간액을 월 적립액으로 바꾼다. 잠시 멈춤.
2. 프리랜서의 들쭉날쭉한 수입. 좋은 달 수입을 기준으로 고정비를 정했다. 안전한 다음 행동. 보수적인 기준수입과 생활비 바닥선을 정한다. 잠시 멈춤.
3. 갑작스러운 치료비. 비상자금이 부족해 고금리 대출을 먼저 찾는다. 안전한 다음 행동. 치료 일정·보장·공적지원·분할납부를 확인한 뒤 부족액을 계산한다. 잠시 멈춤.
4. 명절과 세금. 예상 가능한 큰 지출이 같은 달에 몰렸다. 안전한 다음 행동. 연간 달력에 적고 매달 준비액을 따로 둔다. 잠시 멈춤.
5. 가족 생활비 갈등. 누가 무엇을 내는지 말하지 않아 연체가 생겼다. 안전한 다음 행동. 공동비·개인비·비상연락 규칙을 숫자로 합의한다. 잠시 멈춤.

PART 6 · EDU-03

행동계획과 기록

좋은 계획은 누가·언제·무엇을 확인할지 적는다.

1. 정상: 예정지출 적립과 비상자금을 자동화한다. 잠시 멈춤.
2. 주의: 선택지출을 멈추고 납부일·상환일을 조정 가능한지 문의한다. 잠시 멈춤.
3. 비상: 주거·식사·의료·교통을 먼저 보호하고 즉시 상담한다. 잠시 멈춤.
4. 회복: 밀린 비용을 한꺼번에 갚지 말고 재발 방지 규칙을 정한다. 잠시 멈춤.

PART 7 · EDU-03

권리·도움 요청

권리는 증거와 기한을 갖출 때 더 정확히 쓸 수 있다.

1. 일반 원칙. 비상자금에 모든 사람에게 맞는 법정 정답은 없다. 필수생활비와 소득 변동을 기준으로 정한다. 확인할 조건. 가구 상황과 부양·의료·주거비를 반영한다. 잠시 멈춤.
2. 조건 확인. 복지·긴급지원은 소득·재산·위기사유·거주지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확인할 조건. 복지료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한다. 잠시 멈춤.
3. 일반 원칙. 상황이 어려워질 징후가 보이면 추가 차입 전에 채권자와 공적 상담기관에 문의한다. 확인할 조건. 조정 가능 여부와 조건은 채무별로 다르다. 잠시 멈춤.

PART 8 · EDU-03

복습·평가·다음 행동

틀린 문항은 약점이 아니라 다시 확인할 위치를 알려 준다.

1. 가계예산·현금흐름·비상자금에서 가장 먼저 할 일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지난 3개월 실제 거래를 수입·필수·선택·상황으로 나눈다.입니다.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지난 3개월 실제 거래를 수입·필수·선택·상황으로 나눈다. 잠시 멈춤.
2. 비교표에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할 요소는? 정답은 비용·위험·기한·보호·증거입니다.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잠시 멈춤.
3. 계약이나 거래 뒤 가장 안전한 기록 방법은? 정답은 계약서·설명·거래·접수번호를 원본 형태로 보존한다.입니다.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잠시 멈춤.
4. 제도나 숫자가 바뀔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답은 신청·계약 시점의 공식 기관 안내와 기준일을 확인한다.입니다.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잠시 멈춤.
5. 곤란이나 피해 징후가 생겼을 때 알맞은 태도는? 정답은 추가 피해를 멈추고 사실·기한·증거를 갖춰 공식 창구에 상담한다.입니다.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잠시 멈춤.
6. 사례 '월급은 남는데 통장은 마이너스'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은 비정기지출 연간액을 월 적립액으로 바꾼다.입니다. 월예산에 비정기지출 몫을 넣는다. 흑자처럼 보인 달도 연간비용을 포함하면 적자일 수 있다. 잠시 멈춤.

7. 사례 '프리랜서의 들쭉날쭉한 수입'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은 보수적인 기준수입과 생활비 바닥선을 정한다.입니다. 낮은 달에도 유지되는 구조를 만든다. 사업·세금·생활 계정을 나누면 변동을 더 빨리 본다. 잠시 멈춤.
8. 사례 '갑작스러운 치료비'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은 치료 일정·보장·공적지원·분할납부를 확인한 뒤 부족액을 계산한다.입니다. 필요액과 이용 가능한 지원을 먼저 확인한다. 위기 때는 의료와 주거 같은 필수 영역을 먼저 보호한다. 잠시 멈춤.
9. 사례 '명절과 세금'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은 연간 달력에 적고 매달 준비액을 따로 둔다.입니다. 예상 가능하면 미리 나누어 준비한다. 납부기한과 분납 가능 여부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한다. 잠시 멈춤.
10. 사례 '가족 생활비 갈등'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은 공동비·개인비·비상연락 규칙을 숫자로 합의한다.입니다. 돈과 권한을 함께 투명하게 정한다. 합의는 금액·날짜·담당·확인방법까지 적는다. 잠시 멈춤.

끝맺음

오늘 바꿀 행동 한 가지와 다시 확인할 날짜를 정하십시오.

내용 기준 2026-08-24. 다음 정기검토 2026-11-20.